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서삼석 무안군수

“무안기업도시 상반기 착공할 것”

“국제적 경쟁여건을 갖춘 무안기업도시 건설과 군민의 오랜 소망인 무안시 승격을 올해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 축제’ 민간참여 확대

서삼석 무안군수는 “무안 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한·중국제산업단지가 법정자본금을 확보하고 기업도시위원회의 최종 심의만을 넘겨둔 만큼 올해 상반기에는 토지보상, 이주대책 등의 업무와 함께 반드시 무안기업도시가 사업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서 군수는 “무안기업도시의 진입로 개설을 비롯해 무안 국제공항과 연계노선인 청계~망운간 지방도 815호선, 운남~망운간 국도 77호선 확·포장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접근성을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안군은 지난 2006년부터 남

약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과 관련, 전남도교육청과 중소기업지원센터, 여성플라자 등 전남도 산하 76개 기관단체의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를 통해 무안군민의 속원인 무안시 승격운동에 불을 붙이겠다는 게 서 군수의 복안이다.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올해 서 군수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분야다. 서 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사업 조기발주 경기부양

이와 함께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 부양에도 힘을 예상이며, 군민중심의 열린행정을 구현해 무안을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게 할 계획이다.



원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전략이다.

서 군수는 또 군민이 행복감을 갖고 활力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의료, 환경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가문화 활성화 등 복지인프리를 확충해 무안을 ‘노인 천국’으로 건설해나갈 계획이다.

市 승격에 최선의 노력

서 군수는 “특히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문화관광산업을 적극 육성·발굴해 이를 군민의 소득창출로 연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대한민국 연(蓮) 산업축제에 민간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무안갯벌 등을 이용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들의 새로운 소득

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성수기자 dss@

/ 새 얼굴 /

“도·농 상생 농촌사랑운동 추진할 터”

박 종 수 농협 목포신안시군 지부장



“농업인의 실의증진에 필요한 새로운 소득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수(53) 신임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 지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와 도·농이 상생하는 농촌사랑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 출신인 박 지부장은 목포

고와 전남대 농업 경제 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82년 농협에 입사, 농협중앙회 기획실(전략기획단) 부부장 등을 지냈다. 부인 김영순씨와 사이에 2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등산. /신안=조완남기자 wncho@

“고통 분담…뱃 삶 인하”

목포 여객선사들 결정 ‘신선한 충격’

10일부터 주요 관광항로 대상

“기름값이 내렸으니 올린 만큼은 아니더라도 배삯을 내려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겠다.”

목포연안여객선사들이 오는 10일부터 목포~신안 흉도 등 주요 관광항로의 배삯을 3~6% 인하하기로 전격 결정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해운업계도 전반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하를 결정한 것 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은 “그동안 여객선 업계에서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상승 및 실물경기 위축 등 경영수지가 악화됐다’며 운임인하를 거부해왔지만, 고

통분담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인하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뱃삯이 내리는 항로는 목포~홍도, 목포~제주, 해남 땅끝~완도 산양, 완도 화흥포~청별 등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항로에서 과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삼열 목포항만청장은 “지난해에 관내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5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해양관광 활성화 원년’을 선포한 올해, 이번 여객선 요금 인하조치는 외국 관광객의 국내 유턴 등 최근 관광패턴 변화와 맞물려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항만청은 지난해 목포~신안 가거도와 제주도 등 18개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의 ‘운임(요금) 변경신고’에 따라 원가분석을 통해 12~15% 인상을 승인한 바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진도에서 ‘황제낙시’ 즐겨볼까!

감성돔·광어 등 어종 다양

작년 전국서 2만6천명 찾아

230여개의 유·무인도로 구성된 진도가 낚시꾼들 사이에 최고의 바다 낚시터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목포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를 위해 진도군을 방문한 인원은 2만6천여 명으로, 전남지역에 비해 서울·경기·부산·경남·강원 등 타지에서 온 낚시인들이 더 많이 찾고 있다.

다른 섬지역의 경우 어족자원이

고갈돼 입질 한번 받기도 어려운 곳

이 많지만 진도는 반나절 만에 물려

를 가득 채우는 ‘폭발적인 조황’으

로 낚시꾼들조차 놀라고 있다.

진도에 낚시꾼들이 몰리는 이유는 맹골도·장죽도·관사도 등 곳곳에 낚시 포인트가 산재해 자리를 선점해느라 꾹두새벽부터 잡을 설칠 필요 없이 말 그대로 ‘황제 낚시’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어족 자원의 천국인 진도는 감성돔·뱅에돔·광어·우럭 등 어종이 다양해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최고의 낚시터로 꼽혀왔다.

여기에 2001년부터 관내 54곳에

서 지금까지 238만9천마리의 수산 종묘를 방류해 어족이 풍부해진 것도 한 원인이 됐다. 또 어장 특성에 따라 1982년부터 인공 어초를 7천ha, 4만여개 설치해 어류를 모이게 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진도군은 분석했다.

진도군은 지난해 서망항에 3억 원을 들여 사워실 등을 갖춘 어민 휴식공간을 신축한데 이어 올해에는 해상콘도형 낚시공원을 조성, 가족단위 낚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신안 섬초’ 수확 한창

5일 신안 비금도 주민들이 ‘신안 섬초(시금치)’ 수확에 한창이다. 을 겨울날씨가 따뜻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신안 섬초는 지난해보다 20% 내린 3kg 1박스 1만5천원에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으로 전량 출하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전남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174억 투입

보건소 신축·이동 진료차 구입·전산장비 지원 등

낙후된 전남지역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올해 174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안군에 보건소를 신축하고 여수시 을촌보건지소 등 보건지소 15곳, 고흥군 대덕보건진료소 등 보

건기관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안군에 보건소를 신축하고 여수시 을촌보건지소 등 보건지소 15곳, 고흥군 대덕보건진료소 등 보

건진료소 25곳도 새로 세울 예정이 다. 또 순천시보건소 등 10곳과 나주시 디도보건지소 등 20곳에는 의료장비를, 보성군보건소 등 8곳에는 방문보건사업용 전산장비를 지원한다.

담양군보건소 등 17곳에는 보건사업용 차량 28대를, 무안군 등 2곳에는 구강 보건 이동진료 차량을 지원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안군정 외부평가 호평…작년 상 20개 훑쓸어

신안군이 민선 4기 들어 외부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06년 이후 종양

및 전남도 평가에서 37개 분야의 주요 상을 훑쓸어 148억원의 시상금과

지역개발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의 경우 ‘2008 행복한 도시 대상’을 비롯해 ‘농촌활력 증진계획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국가생산성 대상’, ‘대한민국 조경대상’, ‘자활사업 추진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20개 분야에서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글신미’의 한마디가 자식들에겐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달신께서도 놀 끈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해 넣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행복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지약들은 도늘도 설명해 대한 사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화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급
포스포리스, 카나이, 헥토, 페포, 티리스, 노란

- 티리스: 카나이, 헥토, 티리스

- 페포: 카나이, 티리스, 페포

- 노란: 티리스, 카나이, 노란

● 앤제-에이스 큐텐

국제약품

가장 좋은 약은 사람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neehanm.co.kr

● 앤제-에이스 큐텐

국제약품

● 앤제-에이스 큐텐

국제약품